千餘中國兵의襲擊으로 三百同胞曠野에彷徨

천여명중국병이조선인촌락을습격하야 거류동포삼백여명을야외로축출하엿다

遭難同胞는方今對策을講究中

중국만주 봉텬성서 오가황(奉天城西吳家荒)부근구련둔(句連屯)에 잇는 약일천여명의 중국군인은 십삼일오후세시경에 부근에 거류하는 조선인의 촌락을습격하야 삼백여명의 조선사람을 마을밧그로 또처내인후 부인집에드러가서 가진약탈을 감행하엿다하며 이에쫏겨난 조선인들은 대표자를 뽑아서 방금선후책을 강구중이라하며 그가티 중국군인의 폭행하리면에는 무슨사정이 잠재한모양이라더라(봉텬특신)

朱乙山中에서押送中의 犯人이巡査를刺殺

순사가범인을호송하다가산중에서 순사의칼을빼어가지고순사를척살

漁大津署와淸津檢事局의大活動

함북주을역(朱乙驛)으로부터약 삼십뎡가량 떠러저잇는 산길에서 범인을호송하든 순사가범인에게 척살(刺殺)을 당하얏다는데 이급보를접한 어대진경찰서(漁大津警察署)와청진(淸津)디방법원검사국에서는대소동을이르키는동시에 현장에출동하야 검시를하며 범인수사에 로력중이라는데 내용을드른즉 지난십륙일 남하(南河)주재소순사 김경하(金景河)가모중대범인 한명을 본서로 호송하든중 범인이 순사의 한눈파는틈을타서 순사의칼로 순사를찔러죽인것이라하며 그곳은 산골임으로 아모도업서서 죽은지여러시간후에 지나가는 행인이발견하고 소관주재소에 고발한것이라하며 범인은 아즉오리무중이라더라(주을뎐보)

수산과추산기사 (總督府殖産局水産課秋山技師)와 본도도청복부기사(本道道廳服部技師)두사람은 원산에와서 송뎐수산시험장장(松田水産試驗場長)과발동긔선어업자들을만나보고여러가지협의를한후 종차로 연안일대(沿岸一帶)에 엄밀한 조사를한후에 발포하리라하는데 일본사람들은 원산이남과(元山以南) 신포이북(新浦以北)에 조선사람의 수조망선(手繰網船)이 업다는 빙자를하는모양이나 사실은 그와정반대임으로 사업(斯業)에종사하는 우리나라사람은 특별히 주의하야 이것만이라도 다른나라사람들에게빼앗기우지안키를일반은고대한다더라(원산)

大阪市에 虎疫發生

원인은생선에서

일본대판시갑비뎡(堺利甲斐町)서(西)사뎡목 생어상(生魚商) 원(原)의집에 류숙하는 뎐차차장 삼천검부(森川兼夫)(二〇)는십오일부터 알타가 구일아츰에진정호렬자로 판명되여 생명이위독하다는데 원인은 생선에서전념된모양이라하며 이로인하야 대판(大阪)에도두명의환자가발생되엿다더라(대판뎐)

木浦製油盟罷事件 職工側態度强硬

어데까지든지싸호겟다고

목포제유회사(木浦製油會社)직공일동이 지난십칠일에 동맹파업을 단행하얏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하얏거니와 고주측에서는 직공측의 요구조건은한아도드러주지 아니하고도리혀『벌서이공장은 휴업하라』하얏는데 직공의실업정상(失業情狀)이가련하야 아즉까지 영업을계속하얏다하며 도리혀이번파업은 고대하엿든것이라』하는등 비웃는말을하야 남녀직공 이백오십여명은 공고한단결과 조직뎍으로어대까지던지 투쟁을하리라하며동회사는 재래로부터 직공에 대한대우가가혹하야

수년전에 도파업한사실이잇섯는데 그때는 로동자의계급의식이 몽롱하엿슴으로 회더에굴복하고 또다시 복업을하얏다하며 공장주측에서는 거거익심하야 하로멧푼시간로동에 불과칠십전내외의 가렴한 임금을주며 직공의도태(淘汰)를 마음대로 함부로하야 직공들이와신상담(臥薪嘗膽)한지오래간만에 또다시 폭발된것이라는데 동회사는 조선유일의 큰제유회사이라더라(목포)

最近日本女學生들의 自由戀愛와貞操觀

뎡조보존불부인하는녀자도잇다

근래일본 녀학생들은 사회문뎨와 사상문뎨에대하야는 흥미와리해를 가지지못한대신에 직업(職業)과 련애문뎨에 관한것은매우아것을 중요시하야 성(性)의문뎨를 중심으로 그에관한문뎨에 흥미를가지는 경향이농후하다고 요사이 여러 녀자교육자들은 말하여오는것으로 특히상급생에 대하야는 모녀학교에서 됴사한바에의하면 자유결혼과 자유련애에대하야는 생도들의찬성과 불찬성자가 거진맛스는중 조건을부치여 찬성하는자가만흐며 뎡조보존문뎨에 대하야는 대부분찬성자가 만흐나 불찬성자가 약이할가량 임으로 회교당국자는 새삼스러히 놀내엿다는데 이에대하야 문부성(文部省)에서는 말하되 그들은아직 실제사회에 직면(直面)치못하고 엇더한부분의환경을 가첫스며 사상을리해할 지식이낫또는사회사정과 현대사상에 접촉하기가 귀음으로 자연성(性)뎍 방면으로 쏠리기쉬움으로 근래녀학교출신으로 몹쓸타락하는자가 만허가는것은 성퇴덕(性頹德)의 결합으로 생기는것이라하더라(동경뎐보)

危機에臨한 朝鮮漁夫

원산근해의

특별한후원을 등에걸머진 일본사람들이 발동긔를사용하야 함경도의 특산인명태잡이의 권리를 우리조선사람에게서 빼아스려고 열광뎍(熱狂的)으로 당국에 운동한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사람들의 운동을긔회로하야 본월십일 총독부식산국

請負者의 非人道的態度

普校先生의 生徒毆打로 問題

仁川公普增築 新年會席에서

東洋水組工事中 人夫重傷

한명은생명이위태하고 두명은큰곤희생하엿다

전북태인(全北泰仁)에 수원디(水源地)를둔 동진수리조합(東津水利組合)은 창립당시 (創立當時)인 거월에도인부(人夫)한명이『람포』의 폭발을당하야 즉사(即死)하엿다는말은본보에긔보하엿거니와 지난팔일에도 또

短刀强盜虛僞告發로 鍾路署大騷動

애인에게미친남편을 집에와자도록하고자

시내사직동(社稷洞)삼백번디연긔환(延基煥)의안해 유정숙(兪貞淑)(二〇)은십구일새벽 한시경에남편은 어듸나가고 자긔혼자잇슬때에 한자가량이나되는 단도를가즌 강도한명이 침입하야 유정숙을 협박한후 현금일원을강탈하여갓다고 소관 종로서에 고발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시간을다투어부근일대에

비상선을 느리고범인대포에 노력하엿스나 범인의종적이묘연할뿐 아니라 유뎡숙의말에의심이잇서 인치 취됴한결과 유뎡숙은 신병이잇슴으로 남편은정부(情婦)를두고매일그곳에가서 밤을지냄으로 남편을집에서자게하도록 하기위하야 돈일원은이불속에 감추고 그가리거즛고발을한것이라더라

洪島坪堤防工事中 慘死事件續報

인부세명은즉사하고 부상자까지내엿다고

지난십륙일 오후한시경에 김포군군내면 북변리(金浦郡郡內面北邊里)공동묘디(共同墓地)부근에서홍도평(洪島坪)제방복구

五人組强盜團 鍾路署에逮捕된

사자안코 비러오다

안해의不順으로 남편이縊首自殺

抱川에被捉된 紙幣僞造犯

其母의罪惡으로 貴公子의迷路 (一)

가뎡에서귀하게자라난몸 어듸가서헤매이고잇느냐

……보고추한관계를매진후이 ……년간을 ……정을두고 나려오며간혹 ……것다는데 권긔윤모는 가난한자와도 또한추한 관계를 하야 그의생활비까지 리성녀여옴으로 윤모의처나 집엽들도 그냥두엇섯다 그리사람의일이란것은밀한것로키수운것이업는것임으로 ……두남녀는비밀에비밀을더 세상의이목을 피코저하엿스되 ……되여세상에알려

지게되야 입에서입으로 ……긴기든소문은언으듯남편민귀에들어가고 이어집안……귀에도 들리게 되고본즉 ……붓그림과뉘우침이업는리 여전히해괴한행동과 음란한거조를 하엿스나 남편민자작은 이것을엇지처리하여야 올흘가하며 멧칠을생각다가 로성(老成)한일가들과 친절한 존장(尊丈)들을력방하야의견을

들은후에 자긔집뒤방에 감검키로 결뎡은하얏스나 집안에주부(主婦)가업슴으로즉시그때 일본복강(福岡)디방에서 류학중인아들X증을불러다가급히 결혼을식이여 며느리를 다려다가 살림을맛기고 리성녀는 뒤방으로감검하다십히 하엿섯다 그러나본성이완만하고 음탕한리성녀는 오히려 이것을긔회로 남편이사랑에잇는

틈을타서 밤이면당당히 간부들다려다가 즘생가튼 욕심을채우나 언의누가 감히민자작에게알리우지못하엿섯다 그러나 시일이오래됨을따라 민자작도 자연히이것을 눈치채이고는 그후부터 해만설픗하면 즉시대문을잡그고 하인을식히여 뒤젓당을살피며 물한방울 새일틈업시경계를 엄중히함으로 리성녀는아모리생각하야도도리는업고

번민(煩悶) 은점점더하여집으로나중에는공연히 며느리가싀어머니며 컵을잘못한다는핑계를하고평동친가로가랴함으로민씨가이것을말리엇든바리성녀는 마루에서몸무릅을하야 마당까지굴으며 가진아단을함으로 민씨도엇저지못하고가만두엇더니리성녀는마치주린범이먹을것을보고뛰여가는것과가티허둥지둥단신으로

대문박글 나서써마츰동지달이라 빙판으로 맛그러운길을업허지고 잡바저가며 평동으로가는데 동리아이들은 미친년이나왓다고 또차가며 욕도하고 팔매질도 하엿섯다 그러나리성녀는 조금도붓그러히 역이지안코 허동지동친가로오니 친가에서도 그부친모씨가 로발대발하며 들이지안으려 하엿스나참아자식을 죽일수업서 못본체하엿섯다 그리고그의부친은로인이라 항상사랑에만잇서 리성녀의행동에는 누구한아말하는사람도 업슴으로 그는마음을노코 공공연히 권긔간부윤모와자조맛나 덜어운욕심도 만족하도록풀고 봄바람과 가을달에손목을 마조잡고 산보도단기며 어떤때에는호긔잇게 자동차를몰아시내시외로돌아단기기도하엿섯다 그러나속담에원수는외

나무다리 에서맛난다는격으로 어떤때는 리성녀가칙히사시가미느늘하고 단기다가 뎐차속에서 민자작과 마조치는때도한두번이 아니엿섯다 그리자 얼마안되여 리성녀가 시가에잇슬때 간부의생활비를 대이느라고빗진것이 약만원가량 이엇섯는데 빗장이들은 민자작에게독촉을함으로 민자작은 창피하니까 리성녀가시집올때 분재로

친정에서 어더온토디가 충청남도 공주디방에 잇섯는데 이것을팔아 빗을갑하주고 남어지돈 이천여원은 민자작이사람을식이여 리성녀에게로 몰려보주엇섯다(未)

新町派出所에 一大風波

범인노아달라고 군중이습격하야

십구일오전세시경에시내신뎡유곽행루(幸樓)에 두명의 수상한유흥객이 동두하엿다는것을 탐지한 신뎡파출소원은 곳현장에림검하엿든바 과연 권긔두명의유흥객은 도박을 시작하고잇섯슴으로 곳파출소까지 인치하엿다가 소관본뎡서까지 호송하라는것을 들은 시내초음뎡(初音町) 일백사십사번디 사산팔장(砂山八藏)(四一)외수명의도박자들이 동파출소에이르러 까닭업시 권긔두명을 방송하라고 강청하엿스나 경관은 듯지안헛슴으로 그들일동은 폭력으로써두명을빼여낼작정으로 순사를포위하고 포박하엿든 포승을풀느라할즈음에 어느듯이와가튼 급보를접한 본뎡서에서 수명의경관이와서 항당하게 날뛰는그들전부를 동서에인치하고방금 취됴중이라더라

平壤三聖義塾悲運

평양부내신뎜리삼성의숙(平壤府內新店里三聖義塾)은 평양유지멋사람으로조직된흥학회(興學會)에서 감개무량한 동회원들은배울곳조차업는 무산아동을 위하야 또거운정성의결정으로 다소의물자를 애써지안코 만흔영재교육에 무한한힘써오든 회원및 분은부득이한사정에의하야사퇴하고총무리영근씨(總務李永根)가 인계하야 근근히 부지하여오든바지난동긔휴학(冬期休學)당시부터, 동의숙선생으로 근무하여오든최모방모(崔某方某)두선생은 생도 강모림모고모에게 감언리설로 월사금과시탄비등을 바다쓸뿐아니라 금번학긔부터는 부내귀명학교(府內貴明學校)와 련합이되엇다는 무근지설로 어린생도를 미혹케할뿐만아니라 귀명학교에 압회시킨사실까지 잇는로되는동시에 현재동의숙에서 교편을잡고잇든 교원일동(敎員一同)은크게분개하야선후책을강구중이라더라(평양)

中正丸의遭難

함남신포항 뎐구회조뎜(咸南新浦港田口回漕店)에 단이는배중뎡환(中正丸)은 지난 십사일신포항을 떠나북행하던 길에운무중에 차여지력을 분별치못하던중북청군속후면장진(北靑郡俗厚面長津)바다어구에언쳣다하며 마츰소식을 드른동회조뎜에서는현양환(玄洋丸)이라는배를급송하야 구제코저하엿스나 힘이부족되야 다만배에실른물건만건저실엇다하며 큰손해는업는듯하나중뎡환은장진바다어구에서장시일을보내고잇다더라(신포)

외수건한개를도적하야가지고어대로 종적을감추엇는데 사진관주인이 뒤를밟바약칠리가량되는 수영정이라는 벌판에서 붓잡어서 추의리주재소(鄒儀里駐在所)로갓는데 주소는불명하고성명은 한영호(韓永浩)(二六)라더라(강화)

安、尹、李三氏 無事放釋

열세사람중에

원산 청년회 위원 열세사람을 원산경찰서에서 검거하야 취됴중이라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 십팔일취됴의 일단을보앗슴으로 안종은(安鍾殷)、윤치혁(尹致赫)、리재춘(李在春) 삼씨는 무사히방석(放釋)되고그나마 열사람은 검사국에넘길 듯 하다더라(원산)

各地에非難만흔 專賣當局

전남 라주군삼도면 대산리양래서(全南羅州郡三道面大山里梁來瑞)는 담배한발에사십전어치를사서 두엇다가 전주연초전매국광주출장소원(煙草全州專賣局光州出張所員)에게 발견한바되여 담배(葉煙草) 백몸메를차압당하고벌금이십원추증금십전처분비십오전 (罰金二十圓追徵金拾錢處分費拾五錢)합계 이십원이십오전을 작년칠월 십사일에 엽담배는 소포로벌금은우편서류(郵便書留)로써 광주 송뎡리우편소(光州松汀里郵便所)로 전주전매국 광주출장소 장에게 납부하엿스나 아직까지 령수하엿다는 령수증을 보내지아니함으로 틀려하고 잇섯든바령수증은 보내지아니하고 도로혀차압한엽초 백몸메를 납부하라는통지서가왓슴으로이와가티억울한일을당한소식이전파됨애일반은 전매국의 무리함을 비난하더라

父屍를放置하고 相續權爭奪戰

한아들은부친의말대로하자 한아들은협동에의하야하자

함남홍원군주익면하남리 (洪原郡翼面河南里) 에사는김신교(金愼敎)의 양자득록(得錄)은그아버지신교가 죽은후 삼일간을계속하야 상속권싸홈으로시데(屍體)를방에다두고 일두의애곡도 업시서로 내가상속할권리가잇다느니 네가상속할수업다느니하야

서로반목 중에아직까지 해결이 못나고 시데는썩을듯해빈장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김신교는 토디칠십여일경의소유자인 재산가이나 자식이업슴으로 지금부터 이십여년전에그의형이 아들권긔득선을 입계식힌후 얼마후에 또다시부근강변에서 권긔득록을 어더가지고수양자를삼어서 길러오던중 자긔소유토디삼십여일경을득록의명의로 이미변경을 하엿스며또죽기전에

자긔안해 에게유언하기를 양자인득선에게는 토디팔일경과 돈삼백원과 소한머리를주고 그남어지는 전부득록이에게 주기로하고 작년십이월팔일에죽엇는바 그의안해는 자긔남편의유언대로 양자와 수양자에게 권달하엿더니 득선은 재산가른것은 관계하지안으나 정통계자가 되는것은 인륜이라고주장하야부음(訃音)등을 자긔의 명의로하자고하고 득록은 아버지의유언대로자긔가 상속자가 되겟다고

주장하야 그와가티시데를방에다두고 삼일간이나 싸홈으로 린근동리에 사는 여러구장과 로인들의 닥판이 잇섯스나그것이 모다소용이 업고일시아버지의시데를 등압해 빈장하여두고 여전히 싸홈을계속중이라더라(홍원)

金化岐梧面에竊盜

일월십오일새벽세시경에김화군 기오면 창도리삼백 오십이번디 청순사진관 (金化郡岐梧面昌道里三五二番地成順寫眞館) 에절도가뒤담을 넘어침입하야 팔절사진긔일대와 경옥 (鏡玉一個)

汽車專門 『소매치기』

평남경찰부에서 일망타진하엿다

충청남도 공주군 신상면유구리(忠南新上面維鳩里)십륙번디고원주(高元柱)(五〇)를단장으로한 륙명의「스리」(소매치기)단리복뎡(李福貞)(一九)김희중(金希重)(四八)뎡석순(鄭錫淳)(三三)하영현(河永賢)(三六)리치삼(李致三)(四三)리성실등여섯명은작년봄부터 긔차전문으로 텰도연선인 경성(京城)개성(開城)신막(新幕)안동현(安東縣) 재녕(載寧)안악(安岳)사리원(沙里院) 뎡주(定州)조치원(鳥致院)기타 주요도시에출몰하며「스리」질을하다가 리복뎡 김희중은 데포되엿고나마지는 얼마전부터 평안남도경찰부에서 침식을잇고 데포에로력한결과 지난십삼일 경의선차중에서 전긔나머지까지 전부데포하엿다는데 그자들은 언제든지 이잡화행상처럼 차리고 장충을렴가로판매하다가 돈가진 사람을발견하면 교묘히 절취하엿다는데 그피해가 백여건 수만원에 달하는모양이라더라

勞黨委員今夜出發

지난십칠일에열린수은동조선로동당(朝鮮勞働黨)집행위원회에서는광주청년회(光州靑年會)의동디로동공제(勞働共濟)회관습격사건에 대하야 그진상을됴사하기위하야 위원을 특파한다함은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제좌공림(左公林)씨를보내기로하야 동씨는오늘밤 아홉시 오십오분차로출발한다고

有夫女가乘夜逃走

전북김뎨군죽산면 서포리(全北金堤郡竹山面西浦里)에사는 박문경(朴文京)(三七)의처(妻)는지난일월이일 오후열시경에 간부(姦夫) 한순삼(韓順三)과 가티도망하엿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으면 본부박문경이는 가세가빈한함으로 주식영업(酒食營業)을시작하고잇는터에 그의처가 죽산면죽산리 (竹山面竹山里)에사는 한순삼이와 비밀히간통이되야 밤중에도망 하엿다는데 본부인박문경은 할수업시주식영업도 중지하고 분개함을 마지아니 한다더라(김뎨)

前進會主催 레닌追悼講演

동회관에서개최

시내 견지동에잇는전진회(前進會)주최로오는 이십일일하오칠시에 동회관에서『레닌』긔념강연회(紀念講演會)를연다는데회원은 물론기타 동지단데회원도다수 참석하기를바란다하며 연데와연사는아래와갓다더라

演題	演士
레ー닌의略歷	朴衡秉
레ー닌과民族問題	韓愼敎
國際社會運動과레ー닌	車載貞
레ー닌의無產階級獨裁政治觀	辛哲鎬

荒刻煙密賣者逮捕

광주군 송파 (廣州郡松坡)사는 리찬규(李燦奎)는지난십일일에 황각연초(黃刻煙草)백근을가지고가다가 전매지국원(專賣支局員)에게 발각되야소관경찰서에취됴를밧는중 송파사는 김삼성(金三成)김응옥(金應玉)등두사람의 밀매한 담배를산것이판명되야 밀조자두명을 검거하야방금취됴중이라더라

預金찻고逃走

아산군배방면공수리(牙山郡排芳面公須里)에본적을두고 동군온양면온천리(溫陽面溫泉里)에서 목수(木手)노릇하는 일인범옥진길(帆玉眞吉)의집에서고용으로잇든 림종근(林鍾根)(一七)은 지난십이월이십일일에 권긔주인집 예금통장을 절취하야가지고 아산금융조합(牙山金融組合)에가서 현금팔십원을차저가지고도주하엿슴으로 주인은 경찰에고발하야각디에수배하고데포코자한다더라

東亞夜學校好評

선천군동면 로상동(宣川郡東面路上洞)은본래 적은농촌이라배홀만한곳이 업서서 실로유감이든바 그곳청년들이 알지못함을분개하야 우리도 아모리 농촌생활은하나마 배화알아야 하겟다 는구든결심을 가지고정형규(鄭亨奎)김찬섭(金贊涉)김용삼(金用三)등삼군의발긔로 작년팔월중순부터 야학생사 오인을 모집하야위치는구서당(舊書堂)을리용하게하고 학교일홈은 동아야학교(東亞夜學校)라하며선생은동디에 거주하는 현재선천공립보통학교 오학년에 재학중인 김찬련(金讚鍊)군으로 뎡하고 학과는 조선어、산술、일어、수공등이며 개학한지불과 일개월에 학생이 삼십여명에달하며 하로밤이라도 쉬지안코 열심으로공부하나 경비가곤난하야 일반유생들이 낫시간을리용하야 차례로매일한집 두집의 락엽을모와다가 불을때이고 그외학비는실비로평균히 분배하야 간신히유지하여오든바 지난십이월 하순경에학예회(學藝會)를열고유지 박찹을 간단히설명한후 순서대로그회를 자미잇게 마추어서일반학부형에게 만흔흥미를 주엇다는데 그곳유지인사들은 이에동정하야 만코적음을 가리지아니하고 원조하여준금액이 십여원에달하엿고그뒤를이여학교조합을조직하고조합원을모집한결과일주일에 수십여명의 조합원이참가되여 이십원의 금권을모와합계삼십여원(合計三十餘圓)을적립하엿고 밤에는열심으로공부하고 낫에는신년농사의 준비를 한다는데 그곳인사들은각 에모범될만한 청년들이라고 칭송이자자하다더라(선의주)

新設되는郵便所 新馬山驛近處에

소수의일본인이 거주하는 신마산에는 각관공서가 집합되여잇스며 통신긔관인 우편이잇슴도불구하고 다수의조선인이 거주하는구마산에는관공서업는대신에 통신긔관이라고는 지극히친절한 개인소유의 소위우편소가한곳잇기는하나 분주할 때에는손님의 폭주한일을인하야 여러가지고장으로 불평배출 우편소라고 혹자는말도하야 종종사무원의랭정한행동으로말미아마충돌되는일이 비일비재하얏섯는데 근일엇던방면의 면하는소식을듯건대 종래의신마산의 우편소는 너무나서쪽벽디(僻地)에잇서 불편함을늣기엇는데 금번신마산역근처에 우편소설치의건을 청원한것이 이미인가되야 불일간설비가완성되리라는데 구마산조선인측은 인가가 경조밀하야가는 구마산에 조선인의경영하는 우편소 한아도업는것을더욱개탄한다더라(마산)

◇集會◇

◇成道記念講演會 이십일일(木)은 음력 랍월팔일이니석가모니의설산수행이 진리의대오를 어든날이라 경성에류학하는 조선불교 학생의긔관인중앙불교학우회(中央佛敎學友會)에서 이날을 긔념키위하야일반인사에게 진리의 일단이라도 소개하고저 다음과가티강연회를 연다고

演題『久遠한明星』

演士 崔南善先生

時日 一月廿一日(木)下午七時半

場所 市內壽松洞覺皇寺

휘파람

▲전북 김뎨(金堤)읍내에잇는 대화(大和)목욕집 에서는지난일월십칠일에뎡거장에잇는 김동찬(金東贊)이란 사람이목욕을하러가서▲목욕장에 드러가고저하니까 주인의말이 오날은당신이데일착으로왓스나아즉아무도하지아니하엿스매좀기달려달라고 함으로▲김씨는 말하기를 그러면저편녀자탕에는 목욕을하는데 웨드러가지 말라고하느냐반문한즉 주인은대답하기를 일본 사람도아즉하지 아니하엿스니 일본사람이한뒤에하라고하얏다▲이말을듯고서야그대로 잇슬수가업서 한바탕야단이낫섯다한다

南門通의暗博犯

본뎡서(本町署)에서는 시내병목뎡(並木町)일백오십번디에잇는손창화(孫昌化)(二四) 는 지난십오일오후두시 사십분경에 남대문통(南大門通)일뎡목이십륙번디부근에서시흥군남면군포당(始興郡南面軍浦場)십팔번디원태순(元泰淳)(二八)이란자와 도박을하야 속히여 돈을취하엿다가 본뎡서에검거되엿다고

滿洲踏査 (18)

李涵

十一月二十七日에 第二次로부터 滿洲踏査의 길을寧古塔으로부터다시떠나게되엿다 쌀쌀한日氣에떠올 흘리면서 寧安縣西門을나서서 三十里를步行하야 大牧丹(中語로다무단)이란地點에到着한즉 同胞五戶가잇는데 봄에水田大十晌(每晌이 二千坪)을풀엇스나 水畓이不足하야十晌假量만完全히秋收를하게되엿다하는바 每晌에五石(每石이三百八十斤)式이낫다하며 萬一잘되엿드면每晌에七石乃至十石(三千八百斤)이난다고한다 잘하는農夫는一人이二晌으로부터 五晌까지한다하나 上等農軍은 一萬五千餘斤의籾子를어들것이다 地租(中語로 주즈『租子』라함)는熟地에는一石乃至一石半이며 荒地에는五斗(每斗三十八斤)라한다 中人들이自己所有土地를旱田대로 地戶(小作人)에게주며每晌에地租를 三斗(粟一斗半大豆一斗半)밧게 밧지못하는데 韓人에게水田하기로준다하면 籾子로一石半을地租로바드니 價格으로치면租子一石에十六元인즉 一石半에二十四元이며 旱田대로韓人이만히와서水田을하기로 地租의價格은四元에不過하니 每晌에二十元의利益을 엇는關係만 顧하는것이며 韓人을만나면 自己영에와서 논을하라고付托을하는것이라한다 奉天省管內에서는 半作이나 地主가十分의六을 차지하는데가잇는것을보다가 이러케 헐한地租(每晌에一石半)로 논을하게되는 北滿은참으로 헐한것이라고 생각하야 年年히多數가移住하는바들이다

大牧丹이란地名은牧丹江이其附近으로流한바 江岸의土石色이牧丹花가티 붉은까닭으로된것이며 江岸에古城一座가잇는것을土人들이『高麗城』이라하는데 周圍가一里나되며風雨에洗하야 문허진데가만흐나尙今까지 高가一丈半이나되엿다이것이아마渤海나金時代의 것이라 高麗가松花江以內를차지하엿슬때에 어느富豪가雄據하고잇던基址이거나그러치아니하면 地方을鎭撫하는兵營이잇던 곳일것이다 傳言을들으니 距今二十年前에荒蕪한그城內의土地를 韓人金姓者가農軍二人을식히여開墾케하엿더니 一日은農軍二人이아모말업시逃走하엿기로하도異常히생각하야開墾하던자리를가본즉 高가一尺이나되고周가二尺半이나되는 구리항아리(銅甕)三個를엿에서뽑아노앗기에 그안을仔細히본즉 黃金을담엇던것이라 農軍二人이 그것을發見하고 囊中에大量몰래여가지고다라낫스나 남은것이 오히려만하서 金姓者가取拾하여가지고數年에몰내家族을다리고遠遷하엿다하니 想必富豪者가잇던 亂中에金을무덧다가 그家族이散亡한듯하다 아! 옛자최를생각할때이다